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

손행미¹⁾ · 고문희²⁾ · 김춘미³⁾ · 문진하³⁾ · 이명선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간호직은 여성의 고유한 직종으로 여겨져 왔으며 실제로 간호직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화로 직업에 있어서 남녀역할의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여성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간호직에 남성들도 임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건강 증진을 강조하는 건강 개념의 변화에 따라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자본주의적 사고와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려하게 되는 배경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취업이 쉽고 높은 보수가 보장되며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수를 차지하는 분야에 도전하면 그 분야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성취욕을 가지고 간호학을 지원하는 남학생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Boughn,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 수가 1990년 10명에서 2000년 255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Korean nurses Association, 2001).

이처럼 남자 간호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간호직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화에 따른 파워를 추구하려는 전통적인 남성관에 기인하고 있다(MacDougall, 1997). 과거 간호직을 선택한 남성들에 대한 견해는 남성 자체가 여성스럽고, 동성애적이라는 것(Haywood, 1994)이었다. 그러나 Mason(1991)은 남자 간호사들은 타인에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직장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호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

간호사들은 일단 간호직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전문화된 간호영역과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정신과나 마취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남성적인 특성이 장점이 되는 간호영역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Evans, 1997). 이상은 간호직내에서 보여지고 있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만 남자 간호사들이 여성이 다수인 간호직에 들어와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돕지는 못한다. 즉 선행 연구들에서 남자 간호사들이 간호직을 선택한 동기나 의사들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Sweet, 1995), 남자 간호사의 간호직 내에서의 특권과 이득(Williams, 1995)에 대해 보고되고 있으나 남자 간호사들이 임상 실무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적응과정에서 이들이 겪어내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미흡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간호직에 대한 시각은 간호직은 여성의 직업이라는 성 고정 관념에 따른 사회적 인식(Tak, 1995)과 남성 위주의 의료환경에서 여자 간호사들은 이중적인 성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Koh & Jeong, 1999) 것인데,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간호직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간호직내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장단점을 수용하고 양성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의료환경 내에서 빛어지고 있는 남녀 성차별로 인해 야기되는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간호 전문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남자 간호사들이 간호직내에서 어

주요어 : 간호사, 남자, 적응, 경험

1)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2)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3) 여주대학 간호과 조교수, 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투고일: 2002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3년 1월 28일

떠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 속에 비추어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남자 간호사들의 실무 적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특성과 능력을 간호 전문직 발전에 기여하도록 통합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방법론을 이용하여 남자 간호사의 임상 실무 적응에 대한 심층 경험의 의미체계를 파악하여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의 설계는 연구 대상자의 직접 면담을 통해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연구로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방법론은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질적연구 방법론이다(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방법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실제 영역에서 보여지는 행위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개념들을 발견하고 이들 개념간의 관계를 만들어 냈으로써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basic psychosocial process)을 발견해 해는 것이다(Glaser, 1978).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근거이론방법론은 인간 행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개념화하기 위해 인간 행위의 실제적 영역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근거으로 한다. 그러므로 여자 간호사가 주류를 이루는 간호 현장에서 남자 간호사들의 실무 적응 경험은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영역으로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하여 남자 간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그려지는 의미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근거이론방법론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이론방법론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한다. 코딩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코딩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자료의 지속적인 비교와 이론적 비교를 함으로써 개념의 밀도와 다양성과 통합성을 증가시켜야 한다(Strauss & Corbin, 1990, Corbin, 2000).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는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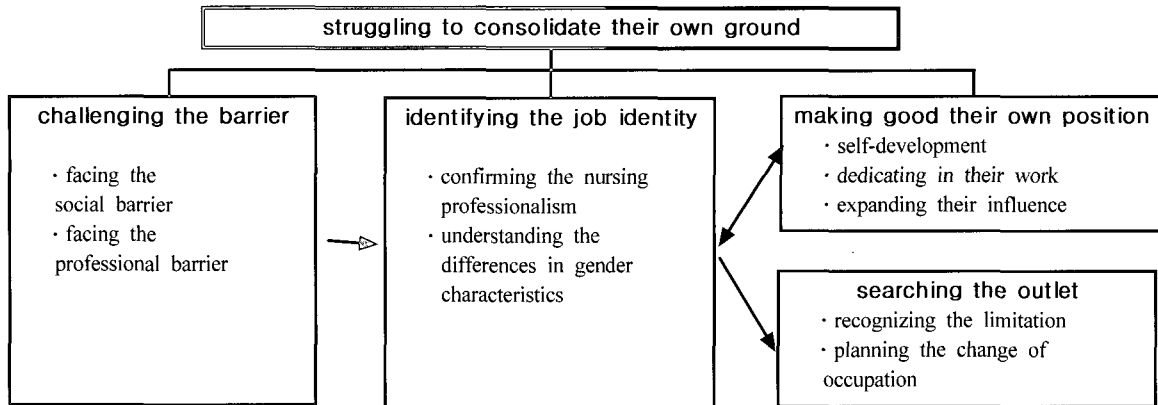
하였다. 연구 참여자 접근을 위하여 남자 간호사회 회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았고 한편으로는 수소문하여 남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남자 간호사와 접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익명성에 대한 보장과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본 연구팀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상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비 구조적이고 개방형 질문으로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 질문은 '간호 실무에 임하면서 남자 간호사로서 특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느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이었다. 초기 면담에서 일반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인당 평균 면담 회수는 2회 정도이었고 평균 면담시간은 1회 3시간 정도이었다. 초기면담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해 부가적인 면담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3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회의 추후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한 후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언어로 필사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동안 포착되지 않은 비언어적 행위와 맥락적인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 노트를 기록하였다. 면담장소는 병원의 조용한 회의실이나 조용한 찻집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론 분석에 따랐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개방코딩을 통해 범주들을 도출한 후, 축코딩을 통해 범주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면서, 선택코딩을 통해 남자 간호사의 실무 경험에 대한 핵심 범주를 발견하고 범주들의 관련성을 정련화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면서 실체이론을 도출하였다. 총 12회의 그룹 토의를 통해 공동 연구원 개인의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서로 공유하였고 자료수집과 분석 시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면서 의견을 수렴



<Figure 1> strategies of male nurses' clinical adaptation

하여 전체 수집된 자료가 포화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면담 질문 구성과 면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공동 연구자 서로의 자료수집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자료 수집상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시에도 그룹 토의를 거쳐 공동 연구자 전원의 합의 하에 개념과 관련성을 발견하였고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 연구자 개인의 잘못된 유추나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공동 연구자들이 각기 면담한 대상자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특별히 상이하거나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참여자 3명에게 면담을 시행하여 연구 결과를 연구 대상자로부터 확인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 근무하는 총 16명의 남자 간호사이었다. 연령은 20대 6명, 30대 9명, 50대 1명이었고, 학력은 대학원 졸업 2명, 대학졸업 5명, 전문대학 졸업 9명이었다. 경력은 1년 미만 4명, 1년이상에서 5년미만 6명, 5년이상에서 10년 미만 5명, 25년 이상 1명이었으며, 근무 부서는 수술장 4명, 응급실 1명, 정신과 2명, 신경외과병동 1명, 회복실 1명, 병원에서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4명, 특수파트(방광경실, 의사업무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3명 등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7명, 미혼이 9명이었다.

연구 결과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은 여성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간호직내에서 '설 자리 찾아가기'가 핵심 현상으로 확인

되었고 남자 간호사들이 설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전략은 <Figure 1>과 같다.

참여자들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직에 들어와서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음을 절감하고 자신들의 설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의 설 자리 없음은 자신들이 다수 속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참여자들은 평범하지 않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이질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어디에서나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의식하였다.

항상 다수 속에서 소수는 참 나쁘대요 그 사람이 표현 안 하더라도 고면도 갖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고면들은 꼭 직업적인 고면이 아니라 뭐 퍽퍽 이런 것도 고면이 될 수 있으니까(중략). 만약에 다수였으면 그런 생각이 오지려 안 들 텐데, 제가 뭐 퍽퍽을 느끼면 '내가 소수이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overlap시키는 거예요.

다수 속에서 소수로 존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다수라는 주류에서 자신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면서 많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다수인 여자 간호사들이 '일정부분까지 신경을 써 줄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메이저가 세력을 잡게 된다'고 믿고 있었으며 다수의 소수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승진의 문제, 상사의 관심에 대한 여자 간호사들의 오해, 남자 간호사를 고려하지 않은 복장, 탈의실을 비롯한 남자 간호사를 위한 공간 부족, 간호협회에서 제작한 캐릭터가 여자 간호사를 상징하는 캐릭터만 있고 남자 간호사를 상징하는 캐릭터는 없는 점 등 많은 부분에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병원에서 준비해 준 여자 간호사의 유니폼과 신발을 그대로 착용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였던' 경험을 떠올렸다.

예를 들자면 병원 내에서 썩카가 없다는 그런,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스트도 먹고... 거기 들어가면 좀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앉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거죠.

이러한 간호조직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은 다수 속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희소가치의 장점도 누리지 못할 뿐 더러 오히려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역차별을 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선배들이 후배에게 남자 간호사는 아무래도 힘겨 가치가 있다. 인제는 끝났어요.

본 연구에서 파악된 남자 간호사들의 설 자리 찾아가기 위한 과정과 전략은 4개의 범주로 파악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벽에 도전하기

● 사회적 장벽에 맞닥뜨리기

유교적 전통이 팽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간호사를 남자들이 한다는 것은 참여자들에게는 '워낙 뿌리 박혀 있는' 성 고정 관념의 큰 장벽이었다. 친구나 친척,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남자답지 못한 무능한 남자로 본다든지, '아 남자 간호사 처음봤다. 좀 특이하다' 등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대할 때 참여자들은 그런 시선들이 따갑고, 당혹스러웠고, 때로는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주로 대중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이 간호사임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적당히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았다. 기혼자인 한 참여자는 처가집에 자신이 간호사임을 알리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도 여전히 간호사임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직을 여성 직업으로 여기는 성 고정 관념을 깨고 스스로 간호직을 선택했지만 두터운 사회적 인식의 벽 앞에서 간호사로서의 자신을 뒤쪽에 감추려 하였다.

아직까지 사회 인식이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내가 설거지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장강 끼고, 빨간 장강끼고 닦고 있으면은 저는 괜찮은데 다른 데서 다른 부서 사냥들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파트 쪽의 부장급들이 와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고 가고 왜 시키느냐 그러고 그러거든요.

또한 간호직에 대한 일반인들, 환자 및 보호자의 편견은 남자 간호사에게 어려운 벽으로 인식되었다. 참여자들은 간호

사는 의사의 보조자 역할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의사와 비교되어 비춰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벽을 느꼈다.

이웃말 얘기해도 유명한 사람들 보편은 약간 거의 간호사 직종을 정말 하인처럼 그렇게 아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았어 이리 오너나 얘기하지 않았지, 법을 제정하는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심하구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간호학 선택의 동기에서도 사회적 장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간호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간호직에 대한 뚜렷한 기대와 목표없이 그저 수험능력 성적에 맞추어 막연하게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심지어 남자 간호사가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서가 접수될 것인지를 의아해 하면서 간호 대학 지원 원서를 접수시켰다고 하였다.

간혹학려 나온 사춘이 무조건 간호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었고, 더 자세하게 알아보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재밌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몇몇 참여자는 의료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간호학을 선택하였으며 한 참여자는 '남들이 안 하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라고 말함으로써 간호직내에서 남자의 희소성에 대한 기대감과 비전을 가지고 간호학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원래는 의료선교나 이런 것들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간호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 전문적 장벽에 맞닥뜨리기

참여자들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 외에 남자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한 과외 업무로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참여자들은 간호업무 이외에 기계 고치기, 무거운 물건 들기나 환자 옮기기, 회식에서 분위기 조성하기 등 다양한 역할을 동료인 여자 간호사로부터 요구받았다. 참여자들은 동료 여자 간호사들이 이러한 요구들을 당연히 생각하는 점에 대해 부당함을 이야기하였으며, 자신들이 그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했을 때 여자 간호사들과 갈등을 경험했다.

많가진 기계들도 다 저한테 갖고 타요. 자긴 모르니까... 한번 고치면 되는데 맨날 갖고 타요. 또 무거운게 있으면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나가면 좀 들어달라 그대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회식자리에서 '막 뭐 노래도 해라 춤도 춰라 학예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싫었는데 병원에서 해를 거듭하다 보니깐 요즘은 제가 알아서 놀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참여자의 경

힘을 통해 참여자들이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온당치 않은 역할 기대에 어느 정도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불만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동료 간호사와 환자 및 보호자들과 성의 특성에 따른 시각차이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동료 여자 간호사들의 '뭐 하러 남자 간호사해요?'라는 반응에 많은 실망을 하였다. 또한 몇몇 참여자들은 '여자의 특성 때문에 뭐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굉장히 짜증났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 간호사들은 여자 간호사에 비해 특수 업무를 많이 담당하였는데 이 점이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역할갈등의 요인이었다. 특히 어떤 참여자는 병원내에서 전문 간호사 혹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physician assistant)으로 근무를 하면서 '내가 간호사인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서클레이팅도 해야 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잡(job)도 해야 하고'라고 말함으로써 간호부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모호성 갈등을 표현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은 일반 병동보다는 응급실, 수술실, 검사실, 의사업무 보조 인력 등 특수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것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졌다. 원하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들은 근무 부서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점과, 다양한 일반 병동에서 직접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불만으로 토로하였다.

물론 많은 병원들이 원하기는 하는데 파트가 제한적이죠. 쯤 아무래도 응급실, 중환자실 한정적이니까, 병동 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병동 보내주고, 보내 죽지 안 죽지 모르죠. 그러니까 갈 데는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나아서 이제 이력서 들고 이렇게 다녀 보면은...

한편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갈등도 참여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주로 여성의 여자 환자들은 주사, 유치도뇨 삽입, 회음부 간호, 대퇴 객박 확인 등과 같이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자 간호사를 남성으로 대함으로써 남자 간호사를 불편해하고 거부하며 여자 간호사를 찾았다. 이때 참여자들은 환자들이 간호사인 자신을 간호사로 받아주지 않음에 당황하였고, 자신을 환자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저도 나쁜대로 주사를 찡 잘 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딱 편하게 놓고 댕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와서 주사를 놓느냐는 거예요. 얘기를 갖다가 할 때 속에서는 딱 화가 나죠

직업 정체성 확인하기

● 간호직관 다지기

참여자들은 간호직을 자신의 직업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간호직은 남을 도울 수 있으며 베풀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에 있어서 성을 구분 짓고 귀천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어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인으로 직장에서 최선을 다 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였다.

어차피 간호사라는 개념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생각해야 하는 직업으로 사명감도 있고 남한테 베푸는거고 그리고 이런 건 남자 일이 아니고 여자 일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 생각이 있으면 근무를 못하고, 남자도 충분히 할 일이고 남자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참여자들은 남자 간호사로서 간호 전문인으로 살아가는데, 남자 간호사의 정체성이나 간호에 대한 신념이 분명해야 여러 가지 장벽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몇몇 참여자들은 '저는 끝까지 환자 봐야죠 그래야 좀 더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간호현장에서 끝까지 환자와 함께 하는 간호를 실천하겠다는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참여자들은 환자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자신은 간호사 아무개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고자 하였다.

훌륭한 간호사는 테크닉으로 승부하는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고. 일정 수준을 요구하는 거고, 인격, 인격적인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을 나이에 상관없이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작은 부분에서 자신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인식과 전문직내에서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남자 간호사에서 이제는 간호사'로 불리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간호직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 남녀차이 인정하기

참여자들은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성 역할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관심사, 사고와 인식, 행동방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양성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차이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간호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자 간호사들의 세심함, 부드러움, 꼼꼼함 등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반면에 남자 간호사인 자신들은 추진력, 신체적인 강함, 대담함, 역동성, 응급 상황의 대처능력, 의사와 여자 간호사 사이의 완충 역할, 편안한 느낌 등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전문직이 남자들에게 더 잘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아주 유용한 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간호일이 남자니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츰 들면 별로 안 무섭다. 신크 상처를 본다든지 한자가 뭐 나쁜 뭐 처치나든지 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자기자리 굳히기

● 자기개발하기

참여자들은 여성이 주류를 이루는 간호조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환자에게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하였다. 어떤 참여자들은 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방송통신대학 편입과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으며, 학회 활동, 다양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간호사 과정 등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 지식을 축적하였고, 그밖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한 부서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업무에 익숙해져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보다는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많이 쌓아 간호 전문직인으로 능력이 개발되기를 희망하였다.

간호사가 되고 난 후에 제가 하고자 했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방송대 편입을 해서 졸업하고 대학원을 작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해서 취득하게 되었구요. 2001년 겨울에는 전문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병원에서 심장센터에 있다보니 춘계, 추계 순환기 내과 학회나 심장관련 학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어회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회를 나갈 일이 계속 있을 것 같고...

● 업무 몰입하기

참여자들은 간호직 입문 초기에는 다른 생활할 여유 없이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업무에 완전히 전념하였으며 업무에 적응된 후에도 여자 간호사에 비해 업무 몰입도와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출퇴근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남들이 퇴근해서 충분히 자기 생활을 즐기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에 빠져들었다. 참여자들은 근무자 결원이 생겼을 때 비번인 경우 보충 인력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였다.

병원 일이거나 자다가도 뛰쳐나와서 일을 하고 밤새서 일을 하고 지원자로 나서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 저렇

게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 세력 확장하기

참여자들은 남자 간호사들도 간호직에 어울리는 적합한 인력이며 남성과 여성 양성이 간호직내에 공존함으로써 간호조직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였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먼저 개인적으로 후배 남자 간호사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어려운 점을 챙겨주어 후배 간호사의 적응을 돕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비공식적인 인터넷 동호회 활동과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정보와 정서를 교류하면서 지지체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존재 및 활동 상을 홍보하였다.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기구로 남자 간호사회가 활성화되어 남자 간호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리고 남자 간호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대 국민 홍보로 남자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위한 개선점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행동화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몫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나도 남자 후배가 있었으면 좋... 아무래도 그쪽으로 생각이 많이 티옴. 그건 사실이에요. 남자 후배가 있으면 티가 안 나게, 티가 안 나게, 여자 후배들에게 티가 안 나게, 좀 더 마음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고 싶죠.

탈출구 찾기

● 한계점 인식하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타 직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간호직의 특성때문에 자신들이 간호직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간호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서도 평생직으로 간호직에 대한 갈등과 불안함을 갖고 탈출구를 찾고자 하였다. 이들은 남자 간호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간호부내에서 고위직까지 승진한 사람이 없으며 여자 간호사보다 승진 확률이 낮다는데서 승진의 장벽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늘 반복되는 업무, 경력이 쌓여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허드렛일과 과중한 업무에 치이게 되는 점을 생각하면서 현재는 자신이 젊기 때문에 업무를 감당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주어진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 의문을 가졌다.

몇 개 병원에서도 남자 간호사들 헤드가 많이 있었으니까, 역사가 이렇게 됐으면 간호과장이나, 간호부장급의 남자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참여자들은 타 직종과 비교하여 상대적 열등감을 드러내었

다. 타 직종에 비해 낮은 보수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면에서 점점 뒤처지고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며 경쟁력이 저하되어 간혀있는 느낌과 퇴보되는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직이 남자가 직업을 통해 비전을 실현하며 자신에게 성취감을 안겨주기가 어려운 직업임을 인식하였다. 또한 간호사로서 뿐 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으로서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간호직이 평생직이 될 수 없다는 참여자들의 갈등과 회의에 크게 작용하였다.

간호직이라는게 남자로서는 큰 비전이 안 보인다. 권력이나 재력 두 개의 목적이 있다면 그쪽 강호 많이 뛰어들었는데 이 직업은 둘 다 없습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간호사인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기혼자나 미혼자 모두 3교대 근무와 휴일 근무로 인하여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가정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워 충실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몇몇 참여자들은 간호직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의식하여 자신들이 간호사임을 당당하게 가족과 남에게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특히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알리는 것을 싫어하였다.

제가 만약 애를 낳다면, 저는 이 일을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직업이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좋은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그런 거를, 내가 낳 간호사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간호사로서의 직업은 별로죠.

○ 전직 구상하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간호직에 대한 탈출구로 직업전환을 계획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직에서 익힌 적응력을 토대로 성공적인 전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업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는 참여자의 말을 통해 전직을 통해 간호직의 발전과 부의 축적을 피하고 싶음에 대한 포부를 보였다. 참여자들이 전직하고 싶어하는 업종은 간호직과 관련된 직종과 간호직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으로 구별되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간호직과 관련해서 간호학 교수, 정신요양소 운영, 의료기 개발사업 등을 계획하였으며, 반면에 몇몇 참여자들은 장사, 독서실 등 간호와 무관한 분야의 개척을 희망하였다.

간호학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가서라도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조금 더 자기가 응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벤처 사업도 할 수 있겠고 틈새 시장을 노려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 의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회소성으로 인하여 간호 학생시절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우대를 받기도 했지만, 간호전문직 내에서 마땅히 설 자리를 찾는 것은 첩합이 놓여진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임상 간호 현장에서 탈의실이나 휴식공간 등 물리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원하는 부서나 상위보직 등 조직구조 속에서 자신들을 위한 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간호부 소속이 아닌 특수 클리닉이나 의사업무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으로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들은 간호사이면서도 간호부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자신들의 '자리가 없는' 느낌을 절감하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기개발이나 업무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끝없는 흔들림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탈출구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의 많은 문헌들이 여성이 우세한 간호집단에서 남성의 수적인 열세가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남자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다수의 상위직을 점유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Austin, 1977; Evans, 1997; Giloran, 1995; Hugman, 1991; Ratcliffe, 1996). 특히 전문화된 간호영역에서는 기술적이고 냉철한 남성적 특징이 강점이 되므로 남자 간호사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남성성을 유지하도록 허락된 그곳에서 그들은만의 분리된 '적절한 자리' 혹은 '남성성의 섬(island of muscularity)'을 구축해간다고 보고되고 있다(Evans, 1997; Williams, 1995).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외국의 실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호 전문화가 자리잡은 외국의 경우에 적합한 설명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만한 우리나라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참여자들도 대부분이 수술실, 회복실, 의사업무보조인력 등의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남자 간호사들이 특수업무에 배치되는 현상은 외국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전문 간호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전문화된 간호업무를 담당한다하더라도 업무의 자율성이나 경제적 보상 등이 적절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수 분야의 근무는 특권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었다.

신규 간호사가 전문직업인으로 되어 가는 사회화 과정이나 적응과정에서 겪는 중심현상은 '현실 충격'(Krammer & Schmalenberg, 1976), '버거움'(Kim et al., 1999), 혹은 '힘겨움을 이겨내기'(Son et al., 2001)로 규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주로 대인관계와 낯설고 과다한 업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직장에 입문하면서 이러한 혹독한 통과의례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군대의 경험을 통해 이미 비슷한 상황에 입문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동료인 여자 간호사들이 고통스럽게 경험했던 인간관계의 갈등을 여자들의 특징으로 차치하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남자 간호사들의 간호직에 대한 태도는 여자 간호사들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직에서의 성 역할 스테레오타입은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이 간호직을 선택한 동기에 있어서도 다른 여자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이끌림, 이타적인 동기와 돌봄 실천의 지향, 직업의 안정성 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연구 결과들과(Boughn, 2001; Cyr, 1992) 유사하며 임상 간호사들의 보편적인 전문직관과 거의 일치하였다.

한편 간호직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Cyr(1992)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에는 간호직을 다른 분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평생 종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남자 간호사들이 간호직을 자신들의 평생 직장을 찾아 다른 분야로 가는 중간기착지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Cyr(1992)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남자 간호사들은 여성들에 비해 직장에 더욱 헌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 전문직내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어려운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남자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강함과 역동성, 추진력 등의 남성적인 특징이 간호수행에 요구되는 강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자기개발과 업무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Boughn(2001)이 지적하였듯이 남자들이 자신을 옹호하려 하는 욕구는 여성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힘은 간호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남자 간호사들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자 간호사들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간호직에 남성이 머무르면서 여성성을 보완하며 타 직종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등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호 조직이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녀 양성의 균형 속에서 간호직의 성 차별 극복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자 간호사들이 설 자리를 찾기에는 척박한 사회 문화적 풍토이며, 간호 전문직내에서 남자 간호사를 위한 여건 마련도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남자 간호학생의 지원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남자 간호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설 자리를 찾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교육적, 제도적, 개인적 수준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Water et al(1999)의 주장처럼 간호 전문직의 이미지를 신장시키고 힘을 배양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와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몫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 역할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 남자 간호사를 여자 간호사와 동등한 전문 직업인으로 수용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도록 도와준다면,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함께 땀흘리는 동반자로서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하여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에 대한 기본 사회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실체이론을 생성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명의 남자 간호사들이었고 연구 질문은 '실무에서 일하는 동안 남자 간호사로서 특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느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이었다.

남자 간호사들의 실무 적응 경험의 핵심범주는 여성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간호직내에서 소수인 남자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설 자리 찾아가기'로 파악되었다. 남자 간호사들의 임상 실무에서 설 자리를 찾기 위한 기본 사회화 과정은 사회적 장벽과 전문직 장벽에 맞닥뜨리면서 장벽에 도전하기, 간호직관 다지기와 남녀의 차이 인정을 통한 직업 정체성 확인하기, 자기개발과 업무 몰입하기와 세력 확장하기를 통해 자기자리를 굳혀나가기, 간호직이 평생직장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전직을 구상하는 등의 탈출구를 찾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본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 다수가 이직이나 전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남자 간호사들이 간호직 내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남자 간호사의 적응을 돕는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ustin, A. (1977). Sex and Gender in the Future of Nursing. *Nursing Times*, 73, 113-116
- Boughn, S. (2001).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 Health Care Perspectives*, 22(1), 14-19.
- Corbin, J. M. (2000). 2000 workshop : Grounded theory approach. *International institute for qualitative*

- methodology*. Korea qualitative research center
- Cyr, J. P. (1992). Male in Nursing. *Nursing management*, 23(7), 54-55.
- Evans, J. (1997). Men in nursing: issues of gender segregation and hidden advantage. *J Adv Nurs*, 26, 226-231.
- Cilloran,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are delivery and supervisory relationship: the case of psychogeriatric nursing. *J Adv Nurs*, 21(4), 652-658.
- Claser, B.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CA: The Sociology press.
- Faywood, M. (1994). Male order. *Nursing Times*, 90(20), 52.
- Fugman, R. (1991). *Power in the Caring Professions* Macmillan
- Kim, B. S., Ryu, E. J., Kim, M. H., Chung, H. K., Song, M. S., & Choi, J. S. (1999).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es' socialization process in the hospital setting. *J Koeran Acad Nurs*, 29(2), 393-404.
- Koh, H. J., Jeong, G. H. (1999). Sexual Discrimination Towards Female Nurses in the Male Dominated Hospital Environment.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sing*, 5(3), 265-276.
- Krammer, M. & Schmalenberg, C. E. (1976). Dreams and Reality: Where do the meet. *J Nurs Adm*, 1(6), 35-43.
- MacDougall, G. (1997). Caring--a masculine perspective. *J Adv Nur*, 25(4), 809-813.
- Mason, P. (1991). Jobs for the boys. *Nursing times*, 87(7), 35-37.
- Ratcliffe, P. (1996).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progress in nursing: towards a non-essentialist structural theory. *J Adv Nurs*, 23(2), 389-395.
- Son, H. M., Koh, M. H., Kim, C. M., & Moon, J. H. (2001). The clinical experiences of adaptation as a new nursing staff. *J Korean Acad Nurs*, 31(6), 988-997.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 Sweet, S. J. (1995). The nurse-doctor relationship : a selective literature review. *J Adv Nurs*, 22, 165-170.
- Tak, J. K. (1995).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 Differences based on Sex, Sex-role Type, and Cultur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1), 161-174.
- Water, K., Postic, M., Durocher, S., Fonker, H., & Brenner, B. (1999). Feedback : Men in nursing. *J Adv Nurs*, 29(2), 523.
- Williams, C. (1995). Hidden advantage for men in nursing.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19(2), 63-70.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Son, Haeng-Mi¹⁾ · Koh, Moon-Hee²⁾ · Kim, Chun-Mi³⁾ · Moon, Jin-Ha³⁾ · Yi, Myung-Sun⁴⁾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4)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ied the male nurses' encounter in adapting themselves in the hospital settings dominated by the female nurses in number.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of 16 male nurses and analysed through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 The behaviors of male nurses for job-adaptation can be summarized as a series of struggles to consolidate their own ground. They have made tremendous efforts to hold their own ground in the nursing profession composed of a large numbers of female nurses, while they have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and problems as minorities. They have struggled to adapt themselves professionally through efforts such as; challenging the social and professional barriers, identifying the job identity, empowering themselves through self-development and dedication, expanding their influence among colleagues.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y had the perception that nursing is not a lifelong occupation for them. Thus, they had tendency to find outlets of change to occupations. **Conclusion:** A specific strategy is needed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is helpful for males in integrating into and adapting to the nursing profession.

Key words : Nurse, Male, Adaptation, Experi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 Haeng-Mi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707, Seokjang-dong, Gyeongju, Gyeongsangbuk-do 780-714, Korea

Tel: +82-54-7702621 Fax: +82-54-770-2616 E-mail: sonhm@mail.dongguk.ac.kr